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박주영 '성탄 축포' 쐈다

## 모나코 이적 첫 3경기 연속골…시즌 6호골 작렬

## 르망과 1대1 무승부 이끌어 팀 구세주 역할 톡톡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다.

박주영은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르망 스타드 레옹-볼레에서 열린 2009-2010 정규리그 19라운드 르망과 원정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분 동점골을 넣어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지난 17일 스타드 렌과 홈 경기(1-0 승) 결승골, 21일 올랭피크 리옹과 홈 경기(1-1 무승부) 동점골에 이어 3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6호 골(2도움)이다. 지난 시즌 모나코에 입단한 이후 프랑스 리그에서 뽑은 통산 득점은 11골로 늘었다.

또 르망과 맞대결에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르망 킬러'로도 자리매김했다. 박주영은 지난 시즌 르망과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박주영은 변함없이 4-4-1-1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2부 리그 강등권인 18위에 처져 있던 르망을 맞았지만, 모나코는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 6분 르망 공격수 토르스테인 헬스타드에게 단독 찬스를 내준 뒤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몇 차례 득점 기회를 놓친 르망의 앙토니 르 탈렉에게 전반 37분 선제골을 얻어맞았다. 헬스타드가 헤딩으로 떨어뜨린 공을 받아 르 탈렉이 골문 정면에서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박주영은 전반 18분 헤딩 패스로 요한 몰로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준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다. 전반 내내 슈팅도 없었다.

하지만 모나코의 구세주는 역시 박주영이었다. 0-1로 전반을 마친 모나코는 몰로를 빼고 야니크 사그보를 투입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박주영의 한 방으로 균형을 되찾았다. 후반 4분 프랑수아 모데스토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침투해 크로스를 올리자 박주영이 골문 앞으로 달려들며 오른발로 차 골문을 열었다.

이후 박주영은 더욱 활기찬 플레이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박주영은 후반 31분 문전으로 쇄도하며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등 아쉽게도 추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AS모나코에서 활약중인 박주영이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르망 스타드 레옹-볼레에서 열린 2009-2010 정규리그 19라운드 르망과 원정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분 동점골을 넣어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 스포츠 산타와 즐거운 성탄

## 홍명보 자선축구·최경환 소장품 경매 등 '사랑나누기' 행사 다채

'스포츠 산타'들이 팬들을 찾아간다.

25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셰어 더 드림 풋볼매치 2009'로 이름 붙여진 홍명보 자선축구가 열린다.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번 경기에서는 올림픽대표팀으로 짜인 희망팀과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 중심으로 구성된 사랑팀이 맞붙는다.

축구 스타들은 소아암 어린이와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한판 대결을 벌인다.

사령탑의 대결부터 흥미롭다.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청소년월드컵에서 8강을 이루며 지도자로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희망팀 사령탑을 맡았다.

사랑팀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02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쓴 황선홍 부산 아이파크 감독이 지휘한다.

희망팀은 홍명보 감독의 제자들인 올림픽 대표팀으로 구성됐다.

'왕년의 스타' 김태영·서정원 올림픽 대표팀 코치도 후배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빈다. 개그맨 이수근도 희망팀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사랑팀에는 K-리그 MVP에 빛나는 이동국(전북)과 이운재(수원) 김두현(수원)등 K-리그 스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올림픽 대표선수들이 직접 '존경하는 선배'를 뽑아 구성된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가수 김종국도 이들과 호흡을 맞춘다.

산악인 엄홍길, 프로야구 삼성의 양준혁, 프로게이머 임요환, 방송인 이하늬 등은 나눔 서포터즈로 나선다.

농구코트에서는 풍성한 성탄절 잔치가 벌어진다.

25일 오후 5시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WKBL(한국여자프로농구)의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열린다. 1970년대생으로 구성된 '여유만만'팀과 1980년대생 '질풍가도'팀의 성탄절 대결이 기다린다. 팬들을 위해 노트북, 드럼세탁기, 디지털카메라 등 푸짐한 성탄절 선물도 준비됐다.

선수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최경환 2군 타격코치도 행복한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최경환 코치와 팬카페 회원들은 26일 오후 6시 서울 대방동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자선경매행사를 갖는다.

두산 시절인 2003년부터 자선경매행사를 해온 최경환 코치는 올 시즌도 변함없이 산타로 변신한다.

이날 행사를 위해 최경환 코치는 자신의 야구용품 및 소장품을 경매에 내놓았다. KIA 선수들의 사인볼 판매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일 KIA 응원 단장은 행사 진행자로 나서고 가수 박미경, 최재훈, 유리상자의 이세준도 사랑나누기에 동참한다.

자선경매 행사를 통해 모인 금액은 전액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사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청용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도전

## 내일밤 프리미어리그 번리전 출격

유럽에 불어닥친 한파로 주중 경기가 취소돼 뜻하지 않게 일주일 동안 휴식한 이청용(21·볼턴)이 체력 충전을 끝내고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노린다.

이청용은 26일(한국시간) 밤 11시 영국 랭커셔주 번리의 터프 무어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번리와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불붙은 골 감각을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4개월 만에 팀의 주축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이청용은 지난 18일 웨스트햄을 상대로 정규리그 3호골을 터트렸다.

3호골도 기쁘지만 지난 13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는 게 더 기분 좋은 일이다. 이청용이 올해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것만 벌써 두 번째.

골뿐 아니라 동료의 골을 도우면서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고 공격포인트를 올린 경기에서 절대 팀이 지지 않는다는 '불패 공식'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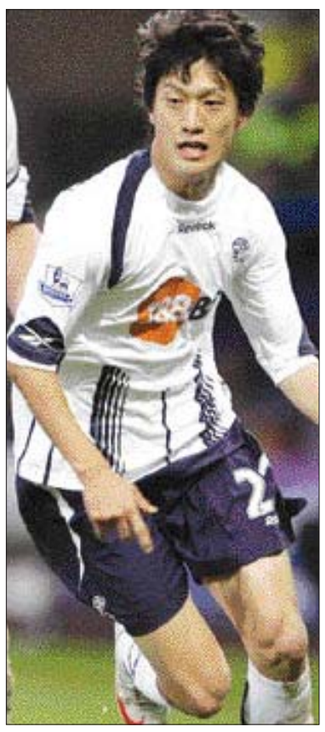
이청용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의 제물로 삼아야 할 상대팀 번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2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셰필드를 꺾고 무려 3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팀으로 지난 8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번리는 이번 시즌 5승4무9패로 14위에 오른 가운데 5승을 모두 홈에서 거두면서 '안방 호랑이'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18위로 강등권에 놓인 볼턴(4승4무8패)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2승1무4패의 성적에 그치고 있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골맛을 봤던 이청용은 지난 22일 새벽 예정됐던 위건과 원정 경기가 한파로 취소돼 충분히 체력을 보충한 상황인 만큼 2경기 연속골과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동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청용은 지난 9월27일 버밍엄과 정규리그 7라운드 원정에서 데뷔골을 터트리고 나서, 곧바로 치러진 토트넘과 8라운드 홈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며 정규리그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9월23일 웨스트햄과 칼링컵 3라운드에서 프리미어리그 1군 무대 데뷔 이후 첫 도움을 기록한 것까지 합치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이미 한 차례 경험했었다. /연합뉴스

# 'Team & Fan First! Go Go V11'

〈팀과 팬 하나되어 V11 일구자〉

## 호랑이 2010 캐치프레이즈 확정

KIA 타이거즈의 2010시즌 캐치프레이즈가 'Team & Fan First! Go Go V11'로 확정했다.

KIA는 24일 팀과 팬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하나가 되어 V11을 일구자는 내용을 담은 'Team & Fan First! Go Go V11'을 2010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1천234건의 작품이 응모됐다.

2010시즌 캐치프레이즈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미진씨에게는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시상된다. 챔피언상 2명과 V10상 10명에게는 각각 LCD 모니터와 소형 사인볼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